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와 그 후

:: 전말숙_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도서관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3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전문도서관 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을 통하여 연구원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었고 연구원 외부, 특히 다른 기관 전문도서관 사서들로부터도 많은 격려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만족 했고,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 상

당했다. 곰곰이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만족감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는 듯 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 많은 시간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여러 해 사서로서 일하면서 도통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 이 상을 받기 전, 그러니까 평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현재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전문도서관으로서 잘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이슈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이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처음 출간자료팀 내에서 도서관평가에 응모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서울 및 도시 관련 도서관으로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잣대였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가늠이 정확치 않을 뿐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것에 시간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았고,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서 20년을 버텨온 서울연구원 도서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2013년도 연초 원장 업무 보고에 도서관 업무 계획으로서 이 사항을 알렸을 때, 원장은 평소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대할 때처럼 적극성과 자신감을 이에도 불어넣어 주셨다. 이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격려와 자극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도서관 운영평가가 있기 두 달 전 내부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 연구원 도서관은 전통적인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꽤 충실히 해 온 것으로 자체평가 되었다. 연구원 도서관은 1992년 10월 1일 서울연구원 개원 이래, 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서울 및 도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정보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연구원 내·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왔다. 도서관의 계획, 예산, 장서, 인력, 정보 서비스 등 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질적·양적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년 도서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 분야별 계획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정기간행물 및 전



자정보원 연간구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연간 계획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도서관 예산은 기관 예산 가운데 독립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대비 예산 유지 혹은 증가를 위해 사업을 착실히 꾸려나갔다. 장서 가운데 단행본 구입은 연구원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장서점검 및 폐기를 실시하여 장서의 질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도서관 인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 및 도서관에서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훌륭함을 자부할 수 있다. 도서관의 인력은 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학 전공자에 한하여 충원하였고, 또한 연구원의 계속 교육을 통하여 정규 사서 모두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속 교육은 학위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 문헌정보학에서 논의되는 학문적 이슈나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도서관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였다.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도 전화, 이메일, 연구원 게시판 등을 통한 정보안내 서비스 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구원 기관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특히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다목적실을 심분 활용하여 영화상영, 회의, 연구원 간행물 전시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가 하면, 정보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무료 복사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2012년도 연구원 및 도서관의 큰 변화를 찾아야 했다. 2012년도 연구원은 새로운 원장 취임과 더불어 연구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연구원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발맞춰 원장이 연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도서관은 도시계획

박사이자 CIO의 역할에 걸맞는 센터장이 이끄는 도시정보센터 아래 문헌정보학 전공의 팀장이 이끄는 출간자료팀에 소속되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원장의 도서관에 대한 평소 가지고 계셨던 뜨거운 관심과 열정, 부원장의 문헌정보학도 못지 않은 도서관 및 사서직에 대한 철학으로 도서관 리모델딩이 시작되었다. 리모델딩을 통하여 도서관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산뜻해지고 새로워진 이 공간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장애인 웹접근성을 위한 전자도서관 개편도 있었다. 장애인 웹접근성을 위하여 브라우저를 개편함과 동시에 모바일 전자도서관도 새롭게 구축하였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많은 회의를 거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도시정보센터 내에서는 지난 20년 간 축적된 도시 관련 연구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장은 “서울연구원 도서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국 최우수 전문도서관으로 평가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서울연구원 도서관이 지향해 온 ‘도시정보 네트워크 허브’의 청병으로서의 그 동안의 노력과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서울 및 도시 관련 전문정보센터로서 아시아 최고의 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도서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요약은 없을 것 같다. 원장이 묘사한 미래의 모습을 위하여 우리 도서관은 계속 노력하고 성장할 것이다.